## 1회 [1. 시를 즐겨요]

	19 [1, 1] 2/12]
1	아래 발치에서 코올코올
2	부뚜막에서 가릉가릉
3	다시 노나 봐라.
4	한 발짝 두 발짝 가다가
5	풀밭을 걸을 땐
6	뒤꿈치로 걸어도
7	풀꽃에게 미안해
8	아버지 콧속에서 울부짖고 있다.
9	양말을 벗겨 드렸다.
10	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

	4회 [3. 마음을 나누어요]	
1	깜빡한 게 떠올랐어요.	
2	이름을 지어 줘야 하는데	
3	매달려 있느라 힘들진 않았니?	
4	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.	
5	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	
6	하루 종일 쥐어짰는데	
7	다들 난리가 났었지.	
8	껄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.	
9	숨이 가쁜 것 같기도 하고요.	
10	와, 제법 기발한데?	

	7회 [6. 차례대로 말해요]
1	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
2	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
3	궁전 밖으로 급하게 뛰기 시작했어.
4	펄쩍펄쩍 뛴 까닭은 무엇인가요?
5	호랑이는 기름 장수도 삼켰습니다.
6	이튿날 아침
7	어스름한 저녁에
8	캄캄한 밤에 호랑이 배 속에서
9	양치기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.

10 겪은 일을 차례대로 글로 쓰기

103	회 [9.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]
1	곤충 한 마리가 붙어 있어요.
2	뿔처럼 생긴 멋진 큰턱
3	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
4	껍데기로 덮여 있어요.
5	얇은 속 날개가 있지요.
6	나뭇진의 냄새를 맡아요.
7	나뭇진을 핥아 먹어요.
8	자신을 드러내어 보이거나
9	큰턱을 맞대고 상대를 밀어붙여요.
10	상대를 꽉 잡고 번쩍 들어 올리면

	2회 [2. 자신 있게 말해요]
1	발표할 차례예요.
2	숨이 컥컥 막히고
3	머릿속은 눈사람처럼 새하얘졌어요.
4	눈앞이 캄캄했어요.
5	큰 소동이 벌어졌어요.
6	넓은 찻길이 생긴 거예요.
7	나가는 길이 끊겨 버렸어요.
8	헤어진 가족을 만나고 싶어.
9	바람에 휘말리기 쉽거든.
10	동물들은 고민에 빠졌어요.
	5회 [4. 말놀이를 해요]

1	
	5회 [4. 말놀이를 해요]
1	쑥쑥 뽑아 쑥 나물
2	꼬불꼬불 고사리
3	말랑말랑 말냉이
4	질겅질겅 질경이
5	빨가면 딸기
6	작은 것은 아기
7	곰 인형은 포근해
8	높다 높다 미끄럼틀이 높다
9	빗자루 하나
10	토끼풀잎 셋

## 8회 [7. 친구들에게 알려요] 1 옛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2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. 3 동그란 장치가 있는 곳 옆에는 4 | 듣고 싶은 방송을 들을 수 5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 6 집으로 가는 길에 7 떨어진 고깃덩이를 보았어요. 8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9 | 개가 짖기 시작하자 10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.

11 ই	11회 [9.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]		
1	일 끝내고 밤늦게 올 때까지		
2	엄마 등에 업혀		
3	통째로 준 거였대요.		
4	소매가 나달나달하던데		
5	코가 납작해지도록		
6	창문에 들러붙어 구경을 했어요.		
7	갑자기 커다랗고 따뜻한 손이		
8	깡충 뛰고 싶을 만큼 반가웠지만		
9	기구 값이 엄청나거든.		
10	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		

	3회 [3. 마음을 나누어요]
1	간지럼을 태우면
2	땅에 떨어뜨렸을 때
3	아기만 예뻐하자 샘이 났어요.
4	단추를 혼자 채워서 뿌듯해요.
5	여동생이 생겼다던데?
6	아마 행복할 거야.
7	어쩌면 질투가 날지도 몰라.
8	칭찬받았을 때처럼 말이야.
9	길을 잃어버렸을 때처럼
10	홈런을 쳤을 때처럼 말이야.

10	홈런을 쳤을 때처럼 말이야.
	<u> </u>
6회	[5. 낱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]
1	뜨거운 국은 식혀서 먹어야
2	누나가 시켜서 내 방을 정리합니다.
3	책 읽기를 다 마칠 때까지
4	의자에 반듯이 앉아
5	오누이는 다치지 않고
6	실감 나게 글을 읽었다.
7	빙그레 웃으시더니
8	칭찬딱지를 붙여 주셨다.
9	정말 호랑이 같다.
10	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.

	9회 [8. 마음을 짐작해요]
1	
1	뒤뜰에 있는 텃밭에 갔다.
2	발에 밟히는 걸 보니
3	나를 빤히 보며 되물었다.
4	멋쩍게 웃었다.
5	옆에서 조금씩 거들었다.
6	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.
7	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지만
8	멀리 떨어져서 달려오고 계셨다.
9	씽긋 미소를 지으셨다.
10	손이 아플 정도로 손뼉을 마주쳤다.

10	손이 아플 성노로 손뼉을 마수졌다.	
12회 [10.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]		
1	정말 게으르구나!	
2	눈살을 찌푸리잖니?	
3	온 세상을 비추느라 힘들었지?	
4	밤길을 잘 다닐 수 있어.	
5	민지가 찬 공과 부딪쳤다.	
6	공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.	
7	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던	
8	무릎이 너무 아팠고	
9	잠깐 말을 멈추었다.	
10	흙을 털고 일어나	

13	13회 [11. 상상의 날개를 펴요]	
1	딸기를 워낙 좋아해서	
2	높이높이 쌓아야 할 정도가	
3	어쩌면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할까?	
4	배탈이 났습니다.	
5	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	
6	궁금해서 창밖을 내다보니,	
7	창문을 쾅 닫았습니다.	
8	얼떨결에 수박을 받아 들었습니다.	
9	머뭇거리는 아저씨를 보고	
10	손수레에 싣고 밖으로	

14	· [11. 상상의 날개를 펴요]
1	큰 동물들은 바닥에 앉혔어요.
2	위험한 동물은 치료하지 않았어요.
3	겁 많아 보이는 고양이라도
4	정말 딱해 보였지요.
5	꿈나라로 빠져들었어요.
6	썩은 이를 실에 붙들어 맸어요.
7	이가 쑥 뽑혀 나와
8	컹컹 울부짖었어요.
9	구멍을 솜뭉치로 막았어요.
10	잡아먹으면 나쁜 일일까

15회 [11. 상상의 날개를 펴요]		
1	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	
2	계획을 세울 때까지	
3	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어요.	
4	정확하게 열한 시에	
5	입을 탁 다물었어요.	
6	선생님이 호되게 말했어요.	
7	받아 보지 않겠습니까?	
8	딱 질색이었거든요.	
9	이제 입을 꽉 다무세요.	
10	이가 단단히 들러붙어서	